

“봄밤에 힐링과 감성 재충전하세요”

대운사 북카페 쿠무다
3월 29일 문화콘서트

부산 송정에 있는 북카페 '쿠무다'는 대운사(주지 주석)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수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향이 가장 먼저 은은하게 다가온다. 바로 주석 스님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커피 향이다. 후각을 느끼고 나면,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원목 인테리어와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들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연말 문을 연 쿠무다 카페 전경.



쿠무다 카페는 지난 1월부터 유명인사들을 초청한 문화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헤민 스님 안도현 이수근 등
문화계 인사 초청 공연 눈길
다양한 볼서로 대중 포교도

는 것을 기쁨이자 자비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이춘호 영남일보 기자가 동요콘서트로 문화콘서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요가 1시간 넘게 펼쳐져 방문한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이날 쿠무다를 방문한 김미희 씨(43)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콘서트에 동참했는데 오랜만에 옛날로 돌

아간 것 같았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볼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 더욱더 좋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쿠무다'는 북카페라는 취지에 걸맞게 1천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서적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에세이부터 소설까지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어 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독서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불교 교서적을 자연스레 읽을 수 있어 포교가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가 세상과 정

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스님은 "스마트폰으로 단절된 세상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쿠무다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 속에만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도 희망과 경이로움이 있다. 쿠무다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발견하길 바란다"며 의지를 전했다.

쿠무다의 문화콘서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5월에는 개그맨 이수근 씨, 8월에는 헤민 스님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계보를 잇는다.

김나영 객원기자

포항 세심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출가일 맞아 세심사 및
문수암 신도 79명 수계



세심사에서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79명의 신도가 수계를 받았다.

3월 8일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포항 세심사에서는 뜻깊은 법회가 열렸다. 세심사 불교대학 1기를 마친 신도 61명과 김해 문수암 신도 18명 등 총 79명이 수계대중으로 참석하고 세심사 회주 성지 스님을 비롯해 주지 청와 스님, 문수암 주지 율환 스님 등 총 2백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전제아사리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교수 아사리 법담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갈마아사리 혜주 스님(태고종 경북동부교구총무원장)이 삼 화상으로 동참했다.

세심사 주지 청와 스님은 대회사

를 통해 "진정한 포교는 스님들의 참다운 수행에 있는 것 같다. 세심사 대중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수행목표로 삼아 불사에 매진하고 아울러 세심사가 포항에서 제일가는 전법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계법회 후 세심사 수계대중 대표로 권 여래삼

관음회장 겸 불교대학 총무가, 김해 문수암 수계대중 대표로 황 무량지 보살이 나란히 수계접을 받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내빈으로 서진국 포항북구청장을 비롯해, 장세현 경북도의원, 최상원·박승훈 포항시의원, 이강덕 前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익 기자

“신도들 마음 하나씩 모아 나눔실천”

3월 12일 해군 훈련병 위한 '보국사 수계법회'



보국사 수계법회서 수계 받는 장병. 이날 법회에는 600명이 계를 받았다.

진해 해군사령교육본부 내 보국사 법당에서 '보국사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3월 12일에 거행된 이번 수계식에는 해군 및 해양경찰 훈련병, 해군 부사관 등 총 600여명의 해군과 통도사 울주 해남 스님,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 및 정종사 신도 40여명이 참석했다. 계를 받은 훈련병들은 총 500여명으로

전제사 통도사 울주 해남 스님으로부터 오게 및 계첩을 수여받았다.

한편, 이번 수계법회는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사됐다. 정종사 신도들의 보시금을 꾸준히 모아온 여해 스님이 약 800만원 상당의 보시금을 보국사에 기부했고, 이 보시금은 보국사 수계식 준비와 햄버거 600개 보시에 쓰여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아픔과 갈등 넘어 평화의 다리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10일 부산 입재식 봉행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상임추진위원장 도법)이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3월 3일 제주에서 순례의 첫 시작을 알린 순례단은 7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3월 10일 두 번째 순례지인 부산을 찾았다. 부산 순례의 시작점인 영도다리는 일제강점기 및 6·25 피난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갈등과 분립을 떠나 평화를 지향하는 화쟁코리아 순례단의 취지와 일치하여 입재 장소로 선정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회, 영도구불교연합회의 협력으로 봉행된 이번 입재식에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원들을 비롯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상임부회장 원범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과 김희운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 강수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부산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수진 스님은 "오늘 화쟁코리아 순례단 여러분으로 평화의 다리가 놓아졌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첫날 부산 민주 총흔담을 시작으로 광복동, 한진중공업, 태종대 앞 선원 위령탑 등을 방문하고 15일 토요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존과 평화의 발걸음을 회향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꾸준한 장학금 보시로 인재 양성”

11일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재)가 일념장학회 전달식을 봉행했다. 3월 11일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백주년 기념관에서 거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각각 장학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계영 동국대 총장은 "올해로 동국대가 건립 108주년을 맞았다. 불

교에서 숫자 108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일념장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뜻대로 교육에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념장학회는 1995년 이영재 이사장과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한 단체로 학

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 보시를 행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불교학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학·공학 계열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3월 7일 경내 서원당서



대성사 금강불교대 졸업식

천태종 대구대성사 금강불교대학이 3월 7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제9회 졸업(수료)식 및 제1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장 화산 스님은 "대승보살도 천태불제자들은 부처님의 혜명으로 자기를 바로보아 자비심을 내어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으로 서두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여 선·악의 씨앗인 연기법을 알아 모든 이에게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천태불자가 되어 달라"고 법문했다.

이날 졸업 및 수료는 1학년 51명 수료, 2학년 46명 졸업, 신입생 110명으로 누계로는 1년 수료 698명, 2년 졸업 545명, 경전반 수료 306명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박광호의 '사진모색전'

3월 18일~2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오랫동안 전통문화 사진에 천착해온 박광호 씨(불교신문 대구 경복지사장)의 '사진모색전'이 3월 18일~23일까지 6일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7년 동안 찍어온 사진 작품 83점을 선보인다.

박광호 씨는 "불교전통이미지와 자연을 통해 심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작품들이다. 이를 통해 내면을 찾아가는 불교 본연의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금통사 탑신 사천왕상, 선본사 갯바위, 거조사 나한전, 불국사 연못, 고운사 창살의 맨드라미 꽃, 운문사 스님, 대견사지 3층탑 등 사찰 곳곳을 찾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053)606-6114

박광호의 '내려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행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낙성식 및 삼존불·신중탱화 점안 대법회

행

구담자모암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여 6년 끝에 불사를 마치고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탱화를 모시어 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태아영가 천도도량을 가꾸고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일 시 _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 소 _ 구담자모암 큰법당
- 증명법사 _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밀운 큰스님

구담사 자모암 법회

- 태아영가천도재 : 5월 4일(일요일) 입재 ~ 6월 22일(일요일) 회향
- 산 신 기 도 : 4월 20일(일요일) 입재 ~ 4월 27일(일요일) 회향

산신각 1년등을 다시면 산신기도를 올려드립니다.(1인 1등)

→출발 버스운행 : 조계사 정문 앞 8시,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8시 30분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99번길 18 문의 (031) 529-2855~6